光日春秋

박범신

'남의 떡'에 대한 정보를 버려야

남쪽의 항구도시에 내려갔다가 이틀 사이 세 개의 도시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고속철도가 생겨서 서울에서 A시까지 이제 명실상부 일일생활권으로 묶였다.

"고속철도로서 이렇게 가까워졌으니, 경제도 좀 나아졌겠네요?" 내가 말했고, A시에 사는 상대편은 대뜸 고개를 저었다. "나아진 건 서울뿐이지요. 고속철도 때문에 A시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서울로 하러 가니까요. 우리 A시 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빠른 내리막길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까지 풀린다니, 정말 큰일이에요."

나는 고속철도를 한 시간 정도 타고 B시로 올라왔다. "요즘 B시 경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또 물었고 마중 나온 사람은 단번에 손사래를 쳤다. 내가 A시에서 올라온 걸 알고서 "그래도 A시가 우리보다 낫지요. 우린 아예 결딴나게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도권 사람들만 국민이라는 건지 원" 하고 말했다. 내가 다음 날 C시로 올라간다고 하자 "C시는 행정도시다 뭐다 해서 우리보다 경기가 훨씬 나을 겁니다."라고 그는 또 묻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C시 사람들의 대답은 딴판이었다. "아이고, 우리는 그놈의 행정도시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왜요?" "행정도시 해줬다고 생색내며, 정부에선 그 외엔 아무런 배려도 없었거든요. 차라리 행정도시 그거,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솔직히 말해서 A시나 B시야 중앙정부 덕본 게 훨씬 많지요. 우리 C시는 빚 좋은 개살구 격인 행정도시 때문에 오히려 원망이 많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다음 날. 수도권의 한 친구는 A시와 B시와 C시의 불만을 한 마디로 냉정히 쓸어덮었다. "수도권이 살아야 지방이 사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도시다 행정복합도시다 하면서, 그동안 수도권을 묶어 놓고 지방에 온갖 재정 지원을 해온 것은 명백한 정책적 오류라고 그는 지적했다. 인구의 절반이 모여사는 수도권 규제를 "확 풀어놔야" 그 혜택이 지방에 골고루 미친다는 논리였다.

깊이있는 논의는 물론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 모두의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장은 나 또는 우리보다 너 또는 너희의 '떡'이 크다는 것이었다. 개발의 연대를 숨가쁘게 지나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키워온 이 '남의 떡'에 대한 과대 포장의 습관과 감수성은 이제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 속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새삼 느꼈다.

'남의 떡이 크다'는 정보로 가득차 있을 때 만나는 심사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에 따른 분노일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는 너와 나를 위험하게 가르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도덕성을 무화(無化)시킬 뿐 아니라 설령, 실질적으로 살림살이가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나아진 살림살이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요컨대 행복과 스스로 거리를 벌리는 결과가 자초하고 마는 것이다.

'행복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알랭은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지점'에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라고 설파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남의 큰 떡'에 대한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 속에 놓여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정상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남의 떡'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남의 정상에 대한 정보일 뿐이므로 설령 '남의 떡'을 내가 그대로 가진다고 해도, 내게 그것이 '만족하는 지점'은 결코 될 수 없다.

자신이 인생에서 참으로 그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자신만의 정상을 꿈꾸기 때문에 '남의 떡'에 그다지 흔들리지 않으며, '남의 떡'에 대한 갖가지 정보 때문에 불행해지지도 않는다. 당장 비를 피할 집도 있고, 크든 작든 테레비 냉장고도 있고, 어쩌면 자가용도 갖고 있는 당신, 지금 행복한가, 불행한가?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세뇌시켜준 서열주의에 따른 획일적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어쩌면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모를, '만족하는 지점' 곧 행복을 찾아 내가 품고 갖는 일이다. '남의 떡'을 쳐다보는데 바빠서 곁에 둔 '행복'을 혹시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작가·명지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여수엑스포 민자유치 대책 서둘러야

정부가 엊그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제시한 마스터플랜을 보완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종합기본계획이 다음달 2일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참가국 유치 활동 등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게 된다.

종합기본계획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전시관이 8개관 16개동에서 7개관 12개동으로 축소됐고 시설물의 면적도 줄었다. 관람객 유치에 필수적인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도 빠져 있다. 상징조형물 등 일부 여론이 반영되고 예산이 22% 증액된 것은 다행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민자유치 규모는 여수박람회 총사업비 2조389억원 가운데 7천107억원에 달한다. 철도와 고속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제외한 아쿠아리움, 엑스포타운, 다목적 공연장, 호텔 등 박람회 주요 시설을 민자로 건립할 계획이다.

민자유치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여수시가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 3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자 설명회를 가졌지만 일부 기업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을뿐 투자가 확정된 사업은 한 건도 없다. 더구나 최근 경기위기가 가중되면서 기업들이 투자여력을 잃은데다 수익성이 불확실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정부는 일부 시설에 대해선 순수 민자사업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공공보조를 통해 지원키로 했지만 투자를 낙관할 수 없다. 경제난이 지속돼 민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박람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는 국비 지원과 세금 감면 등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박람회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조직위원회, 기업의 적극적 노력과 참여가 요구된다. 자치단체와 지역사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

불황으로 '온정' 끊긴 복지시설 안타깝다

불황으로 복지시설이 찬바람을 맞고 있다.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 2월부터 10월까지 모은 기부금은 48억7천3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억7천227만원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불우이웃돕기 집중 캠페인기간인 12월과 내년 1월 목표액 66억8천만원도 채우기 힘들다고 한다.

모금액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후원 물품 및 지정 위탁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이후 꾸준히 늘어온 공동모금액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을 정도다. 빈곤가정, 혼자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의 겨울나기를 지원할 최소한의 생필품 조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찬바람은 모금액에 그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온정의 발길도 뚝 끊겼다. 연말이면 답지하던 김치, 의류, 연탄 같은 후원물품이 지난해에 비해 70~80%나 줄어들었다. 후원금액도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광주시 서구에 매월 1천만원씩 기부금을 내놓던 익명의 '천사'가 지난 6월 500만원을 끝으로 연락이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물론 우리 사회의 인심이 완전히 마른 것은 아니다. 완도군에는 지난해 익명으로 쌀 100포대를 기부했던 독지가가 "많은 양을 못 줘 미안하다"며 최근 50포대를 보내왔다고 한다. 사회단체, 종교계, 기업체 등에서 김장을 담가 불우이웃에 전달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나눠서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려는 고마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작은 정성은 더욱 절실하다. '사랑을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말도 있다. 어려울 때 상부상조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다. 부디 우리 사회의 '온정'이 되살아나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소영

게나 새우를 삶으면 왜 붉어질까?

"여러분, 우리 꽃게들은 무슨 색깔이지요?"

과학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지. 꽃게 학생들은 저마다 자기 몸을 돌아봤지만, 누구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지. 꽃게들은 뭐라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색깔을 하고 있었거든.

"우리 꽃게들은 어둡고 조금 칙칙한 색깔을 하고 있어요. 암컷은 어두운 갈색이고 수컷은 초록빛을 띤 갈색이죠. 갈색이라고 해도 회색에 가까운 탁한 색깔입니다. 우리 몸의 색깔은 한가지 색깔로 부를 수 없을 만큼 오묘하고,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부디 이 색깔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꽃게 공주는 자기 몸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조개처럼 희거나 먼 바다의 산호초처럼 붉은색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꽃게 공주는 과학선생님이 하는 말은 귀담아듣지 않았어.

"학생 여러분, 혹시 빨간색 꽃게를 보신 적이 있나요?"

꽃게 공주는 인간의 그물에 잡혔다가 가까스로 그물을 뚫고 살아 돌아온 늙은 꽃게를 만나러 갔어.

"나도 붉게 변한 꽃게를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붉게 변한 새우는 본 일이 있지. 인간에게 잡혀서 붉게 변하는 건 우리 게만이 아니다. 새우도 바닷가재도 우리와 같이 아스타산틴이 몸에 있어, 뜨거운 열로 가열하면 붉어진단다. 연어나 숭어 같은 물고기의 살색도 같은 성분 때문에 붉지. 그래, 그 색은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어. 물론 아름답단다. 하지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아름다운 게 무슨 소용이겠니."

꽃게 공주는 죽는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 빨간색으로 변하면 어떨까?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지. 그래서 오늘도 꽃게 공주는 인간들이 사는 곳 가까운 모랫바닥에서 인간들을 지켜보고 있단다.

"삼촌, 그럼 내가 오늘 먹은 꽃게가 그 꽃게 공주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쩐지 슬퍼요."

빨간색 꽃게? 꽃게 공주의 귀가 번쩍했어. '나도 빨간 꽃게가 되고 싶어!'

"그건 우리 꽃게들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아스타산틴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갑각류나 어패류가 적외선의 악영향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갖고 있는 색소지요. 이 색소는 단백질과 결합해 있을 때는 청록색을 띠지만 분리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단백질이 분리된다는 건, 우리를 삶거나 구웠다는 얘기죠. 70℃ 이상이 되면 단백질과 아스타산틴 색소의 결합이 끊어집니다. 인간들은 우리 몸이 붉게 변하면 군침을 흘리며 덤벼들죠. 그들은 붉은색을 보면 식욕이 돋는다고 합니다."

꽃게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었어. 우리를 삶거나 구워 먹는다고? 우리가 죽은 걸 보면서 군침을 흘린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었지.

"특히 암컷 꽃게들은 주의해야 해요. 6월 암컷의 맛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우리 꽃게 암컷들은 항상 몰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업을 마친 꽃게들은 어떻게든 인간에게 잡히는 것을 피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꽃게 공주는 반대로 빨간색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지. '한번이라도 아름다운 빨간색 몸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과학이가 심각해졌구나. 꽃게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꽃게는 너무 맛이 있잖니. 게다가 몸에도 좋단다. 꽃게에 많은 타우린은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 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에도 좋단다. 꽃게가 멸종될 정도로 마구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량을 고마운 마음으로 먹는 것은 괜찮아."

"삼촌, 그런데 색깔이 변하면 게의 성분도 달라지는 게 아닌가요?"

"기특한 질문이구나. 신기하게도 껍질이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새우나 게의 영양성분이 달라지지 않는단다. 또 이 아스타산틴 색소는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단다. 비타민 E보다 550배에서 많게는 1천 배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 그래서 건강 보조제나 화장품 등의 성분으로도 사용되지. 아까 아스타산틴은 붉은색을 띤다고 했지? 그런 특징 때문에 색소로도 사용되고 있어. 양식어류의 색상이 더 붉게 보이도록 사료에 첨가하기도 하고, 합성 아스타산틴은 관상용 물고기의 색상보조제로 쓰이기도 해."

"우와, 꽃게 등껍질 색깔 하나에도 정말 많은 과학적인 지식이 담겨 있네요. 앞으로는 꽃게를 먹을 때마다 삼촌 얘기가 생각날 것 같아요. 삼촌, 고마워요."

〈과학칼럼니스트〉

기고

오건탁

U-대회 조건부 승인 취소하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비용을 시가 전담하라는 잠정적 결정이 내려져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대회는 비롯 광역단체인 광주시가 시도하고 있지만 엄연히 국제행사이며 국가의 위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가가 나서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문광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유치 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광주시민들의 자존심과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광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 비용의 경우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때 유치비용을 대구시에서 자체 조달한 선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국제 체육계 흐름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고 밝혔다.

대구 대회때 자치단체가 자체 조달한 선례를 적용한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대구와 광주시의 경제규모와 자립도가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가. 과거의 지역 편중주의에 내몰려 빈부 격차가 그 얼마나 벌어졌는가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앞서있는 대구에 빗대어 광주를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논거가 너무 빈약하다. 광주시가 유치에 실패했던 2013 유니버시아드 때는 정부가 18억을 비용으로 지불했다. 대구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왜 이때는 정부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앞뒤가 맞지않는 처사다.

또 국제 흐름은 무언가. 마치 전 세계가 일률적으로 지방의 국제행사를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강조하며 어물쩡 피해가려는 행태가 실망스럽다. 설혹 그렇다하더라도 국내 상황과 지방단치단체의 경제 사정 여하에 따라 국가별로 지원여부가 달라야하는 것이다.

문광부는 또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유로 대고 있다.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오히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 사정이 지금보다 나을 때는 지원해놓고 지금은 그만 못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거꾸로 지원을 못하겠다는 해명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지난 2013년 유치 때 국가 지원 비용은 18억원에 그쳤다. 270조원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정부가 새마을 사업 차원의 마을 다리하나 건설하는데 드는 정도의 비용도 지원하지 못하겠다면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누가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했는가. 시민들의 반응이 일기도 전에 정치적 배경 운운하는 걸 보면 그쪽으로 의심을 갖게도 한다. 지금 이 지역은 고속철도, 무안공항 활성화 ,전남도의 F1 사업, 혁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형 현안을 놓고 가슴을 태우고 있다. 가뜩이나 격해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유니버시아드 같은 국제행사 비용을 가난한 지역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가.

벌써 지역 체육계를 필두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 때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 때까지 시민들은 결집하여 지혜를 모으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장서 정부를 파고들어야 한다. 18억원 예산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

35년이 채 안되는 일제치하 기간을 왜 36년이라 부르는가

집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조카 공부를 가끔 봐주고 있다. 8·15 광복절 관련 내용을 가르쳤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교과서에는 일제의 압제 치하를 36년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이건 지난 수십년간 사용해온 용어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자.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겨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으니 정확하게 34년 11개월 14일간 일제 치하에 있었다. 35년이 채 안되는 기간을 왜 36년으로 애써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일이 그 기간을 따져 34년 11개월 14일간이라고 표기하기 번거로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충 가르칠 수 있는게 아니다.

또 일제의 입장에서 불리던 명칭으로 일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명명된 을사보호조약은 을사늑약으로 바꾸어 표현하는게 맞다. 나라를 합쳤다는 의미의 한일합방도 '경술국치'로 불러야 한다. 이 또한 하루빨리 고쳐서 표현토록 해야 한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無等鼓

식량위기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현재 지구상에서 식량위기에 처한 국가는 줄잡아 40개국에 육박하고 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도 식량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곡물을 수출하던 나라들도 곳간 문을 잠그기 일쑤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곡물가격 급등세가 한풀 꺾였으나 식량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급등락을 거듭하는 가격 불안정성으로 내년도 국제 식량수급 전망도 불투명하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향후 2년내에 곡물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량위기는 우리에게도 결코 먼 산의 불이 아니다. 쌀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5%대에 불과하다. 연간 1천200만t에 달하는 밀과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정책은 경제에 우선 순위를 뺏긴 지 오래다. 당면한 금융위기에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 출범으로 농업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영농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농가소득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갈수록 영농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농가소득 하락폭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면서 지역 농업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1차 식량위기가 닥쳤던 지난 70년대 초 우리는 다수확 벼를 개발해 쌀을 자급했다. 수입 밀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밀과의 가격 차도 줄어들어 농진청이 개발한 국산 밀 신품종 보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여년 연구 끝에 농진청이 보급한 청보리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조사료 대체작물로 떠오르고 있다.

공자는 '군사(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식(食)'이라며 군사력 확보보다 식량안보를 중시했다. 식량위기는 단시일내에 극복할 수 없다.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